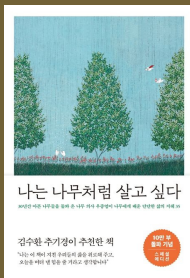


독서감상문

- ▶ 도서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
- ▶ 저자 우종영
- ▶ 출판사 메이븐
- ▶ 출판연도 2021.2.8.



- ▶ 부서 지방소득세과
- ▶ 직급 세무7급
- ▶ 성명 홍유기

우리 구청 초입엔 오래된 목백합이 있다. 그 목백합 앞에서 신규 시절 C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.

“처음 공무원 됐을 때 이 목백합 아래에서 공직자의 꿈을 키웠어. ○○ 씨도 이 목백합 같은 공직 생활을 해나갔으면 해.”

당시엔 강남의 화려한 공간에서 값비싼 음식과 술을 사주시는 선배들을 따라다니기 바빠 그 말을 이해할 겨를이 없었다. 하지만 5년 차쯤 되어 업무적인 송사 訟事에 휘말렸을 때 도무지 해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 나무를 찾았고 그곳엔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다. 마치 말없이 기다리는 그 목백합처럼. 이후 수개월 간의 다툼 끝에 승소했고 다시 팀장님과 함께 나무를 찾았다. 마치 커다란 목백합처럼 내 그늘이 되어 준 것 같은 팀장님. 물론 나무의 존재와 팀장님의 격려가 그 싸움의 종지부를 찍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. 하지만 공직 생활 중, 나아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결정적 순간임은 틀림없었다.

매일 8시 50분의 업무 시작 방송과 동시에 송출되는 긴 한숨을 주체할 수 없다. 또 얼마나 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동료와의 불협화음으로 가슴의 통증을 안아야 할까? 그 순간 L 팀장님께서 뱅갈고무나무의 잎을 다듬는 곳으로 시선이 갔다. 마치 선배가 후배를 다독인 것 같은 그 행위가 날 위로하는 듯했다.

“팀장님은 왜 나무를 키우세요? 힘들지 않으세요?” 팀장님께선 여유 있게 반문하셨다. “○○ 씨도 나무를 키워 봐.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”

그리고 보면 민원인·동료와의 피할 수 없는 불편함 앞에서도 늘 침착함과 태연함을 유지하셨던 팀장님의